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16년 포어 §

주님, 우리로 화해하게 하소서
(교후 5:18-21, 창 33:1-4)

十 행동 지침十

- 1. 말씀과 비전으로 하나 되는 교회
- 2. 다음세대 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
- 3. 기도와 전도의 사명을 다하여 부흥하는 교회

발행인 : 박노철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seoulchurch.or.kr>



하나님의 풍성한 위로

(사 51:1-16)

God's Abundant Consolation

(Is. 51:1-16)

본문을 통하여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한 번 위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사 51:1 상).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 십자가를 아는 자들을 부르십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들에게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사 51:1 하).

하나님께서 위로의 메시지를 시작하시면서 떠낸 반석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고 하십니다. 떠낸 반석은 아브라함을 의미합니다(사 51:2).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자신의 본토 고향 아비의 집을 떠나게 됩니다. 떠낸 반석이 된 것입니다. 또 파낸 우묵한 구덩이는 사라를 의미합니다. 반석을 떠나면 우묵한 구덩이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험한산으로 고향을 떠났고, 99세가 되도록 자식 하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라와 더불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어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창대케 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예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와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찬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사 51:3).

아브라함처럼 떠낸 반석이 되셨습니까? 사라처럼 자식을 못 낳는 여인 같은 상황에 계십니까? 그런 황폐한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사막을 예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와 동산 같게 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또 "나의 의로운 백성들이 내 언약의 백성들이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고 하십니다(사 51:7).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수가 아무리 강해 보여도 좀벌레에 먹혀 들어가는 옷 같이 종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 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지만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은 영원히 세세에 미칠 것이기 때문입니다(사 51:8).

하지만 하나님의 이 같은 위로의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답답한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앞이 안 보이는 캄캄한 가운데 헤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사 51:12)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 여호와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분이십니다(사 51:22).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은 말씀으로만 위로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채찍에 온 몸이 찢기시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오르시어, 결국 양손과 양발에 대못이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외로움과 우리의 눈물을 지금도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결국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영원한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박노철 목사
(서울교회 담임)

Through the text, God who is good comforts us again.
Who is the object to receive God's consolation?
"Listen to me, you who pursue righteousness and who seek the LORD:"(Is 50:1 upper).

Anyone who receives God's consolation is to pursue righteousness and seek the LORD. God calls those who know his righteousness. God says to let those have God's word in their mind listen to him.

"Look to the rock from which you were cut and to quarry from which you were hewn" (Is 51:1lower).

By beginning the message of consolation, God says the rock from which you were cut and the quarry from which you were hewn. Here, the rock means Abraham (Is 51:2), and the quarry means Sarah. Abraham, who had received an order from God, left his native town his father's house. He became the rock from which he was cut. Because, when the rock is scooped out, there is a hollow pit.

Abraham left his hometown by himself without a single relative and had no children until the ninety nine-year-old. But since God blessed Abraham together with Sarah and gave them grace, his descendants flourished like stars in the sky and sands in the sea.

"The Lord really comforts Zion and looks with compassion on her all ruins: he will make her deserts like Eden, her wastelands like the Garden of the Lord. Joy and gladness will be found in her, thanking and the sound of singing" (Is 5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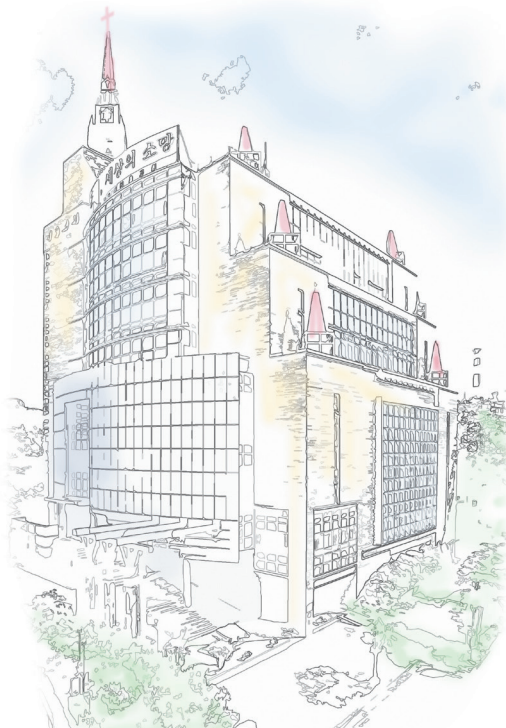
Will you become the rock from which you were cut like Abraham? Are you in the situation of which you cannot bear a child like Sarah? God promises that He changes a desert in to Eden for the depressed people, and the wild in to Eden of the Lord.

God says, "Hear me, you who know what is right, you people who have my law in your heart: Do not fear the reproach of man or be terrified by their insult (Is 51:7). What is that reason? No matter how strong the enemies, the moths eat them up like a garment and the worm devours them like wool, but God's righteousness and his salvation through all generations will last forever (Is 51:8).

However, despite this kind of God's consolation message, our oppressive situation scarcely is ever better. We are still wandering in the darkness in which we cannot see anything in front of us. But God says, "I, even I, am he who comforts you" (Is 51:12). It is our sovereign Lord who releases His people's resentment (Is 51:22).

My beloved Christians,

Our God who does not comfort us only with his word, he in the appearance of man came to this world in order that he might share our pain and torment together with us. He wore the crown of thorns, was torn by receiving a whipping, and came up the hill of Golgotha. Finally he was hammered by spike nails into his two hands and his two feet hung on the cross left to die. Still, such Jesus is looking at our pains, loneliness, and tears. We eventually will take an eternal victory with Jesus' resurrection.



2016년 순결서약식

신청 및 교육 : 부서별 / 3월 27일(주일) 오후 찬양예배시간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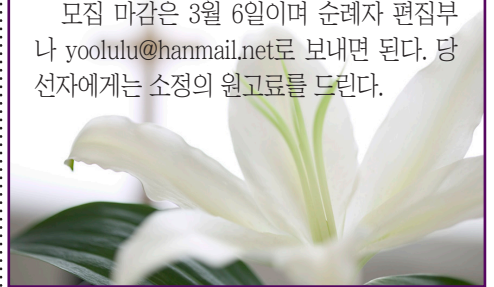
2016년 순결서약식이 3월 27일(부활절)주일 오후 찬양예배시간에 열린다. “주를 향해 자기를 깨끗하게”(요일3:3)라는 주제로 거행되는 순결서약식은 성의 올바른 개념을 정립하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레11:44)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고자 함이다. 대상은 13세 이상의 모든 미혼 남녀(중등부, 고등부, 청년부)로 결혼 전까지 하

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순결을 지킬 것을 서약한다. 순결서약을 한 젊은이들에게는 항상 서약을 상기할 수 있도록 “순결서약서”와 “순결서약기념품”이 주어진다. 순결서약 신청자는 해당 교육부서에 신청하기 바라며, 3월 첫째 주(3월 6일)까지 부서별로 전체 취합하여 교육위원회 서기에게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

부활절 시 공모전

순례자 편집부에서 청·장년을 대상으로 시순절 묵상시, 부활절시 각 1편씩을 공모한다.

모집 마감은 3월 6일이며 순례자 편집부나 yoolulu@hanmail.net로 보내면 된다. 당선자에게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린다.



제39학기 서울성경대학 및 전반기 열린프로그램 개강

3월 7일(월) ~ 5월 15일(주일), 10주간

2016년 제39학기 서울성경대학 및 2016년 전반기 열린프로그램이 다음과 같이 진행 된다. 대상은 전교인이며 기간은 2016년 3월 7일(월) ~ 5월 15일(주일), 10주간 진행된다. 수강료는 10,000원이다.

| 강좌 | 요일 및 시간 | 담당 | 장소 | |
|---------------------|---------------------|-----------------|--------|------|
| 성경과목 (10주) | 출애굽기와 구속사 | 목, 저녁 7:00~8:00 | 박영준 목사 | 602호 |
| | 바울옥중서신 | 금, 오전 6:10~7:00 | 황광 목사 | 603호 |
| 성경통독반 | 목, 오전 10:30~12:00 | 유문건 목사 | 501호 | |
| 선교대학(8주) (3/7~4/25) | 월, 저녁 7:00~8:30 | 장석남 목사 | 602호 | |
| 살롬 경로대학 | 목, 오전 10:00~오후 1:30 | 서명철 목사 | 101호 | |
| 교사양성반 | 주일, 오후 3:20~4:10 | 교역자 전체 | 606호 | |
| 교구일꾼양성반 | 주일, 오후 3:20~4:10 | 교역자 전체 | 607호 | |
| 전도학교(12주) | 주일, 오후 3:10~4:30 | 배경애 전도사 | 506호 | |

| 강좌 | 요일 및 시간 | 담당 | 장소 |
|----------------------------|-------------------|---------|------|
| 서울음악교실 | 주일, 오후 1:30~3:00 | 박영준 목사 | 601호 |
| 결혼예비학교(5주) (3/20~4/17) | 주일, 오후 3:30~4:30 | 서준권 목사 | 609호 |
| 수화학교 (3/6~6/19, 9/4~10/23) | 주일, 오후 1:00~1:50 | 임규현 목사 | 609호 |
| 어머니 힐링스쿨 | 화, 오전 10:00~12:00 | 양세라 목사 | 601호 |
| 서울 아기학교 | 목, 오전 10:30~12:30 | 구본혜 전도사 | 706호 |
| 비블리오 바이블 스쿨 | 토, 오전 10:00~12:00 | 양세라 목사 | 702호 |

2월 세례식 거행

서울교회 당회 주관으로 지난 2월 21일 주일 1, 2, 3부 예배 시 2016년 첫번째 세례식이 있었다. 교구와 다락방 및 각 교회학교에서는 세례 대상자를 적극 추천하여 주시기 바란다. 사전교육 및 신청절차는 새가족위원회 세례교육부(607호)에서 담당하고 있다. 금번 세례/입교/유아세례자는 다음과 같다.

- 세례 : 정성환 전윤미 정영희 김귀남 최정분 박신향 최규철 장정애 신서호 이다영 이종관 계 11명
 - 입교 : 문예림 박소희 오예성 이재현 문정원 원지현 홍자영 계 7명
 - 유아세례 : 권민준 박지안 계 2명
- 총 20명

비전2020운동 후원자

김성자1 (1) 이덕빈(1)

이종운 원로 목사의 크리스찬의 신앙곡선

방언과 예언에 대한 이해-II

(행 2:1-4)

방언에 대한 이해

초대교회는 굉장히 모범적인 교회이지만 방언 안장되지 못하고 신앙은 어린 아이와 같았다. 고전 16:19를 보면 초대교회를 가정교회라고 했다. 이렇게 가정에 모여 예배하는 중에 자기들의 받은 영적 은사를 각각 나타내 예배를 도우려 했던 것이 초대교회의 영적 은사였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러한 초대교회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방언에 대한 해석을 하고 있다. 한 마디로 방언은 성령의 역사로 나타난 은사로 결코 어떤 심리적 현상이나 사회학적 기현상이 아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 아라비아의 15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인 제자들이 하는 말을 각각 자기 나라말로 알아들었다고 했다. 그런가 하면 고린도전서 12, 13, 14장에 나타난 방언은 통역을 해야

만 이해할 수 있는 방언이었다.

사도행전의 방언의 목적이 교육이 아니라 성령 강림의 확인이었다면, 고린도전서는 방언이 개인이나 회중에게 통역만 된다면 교육적인 것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개인이든 회중이든 동시통역만 되면 방언이 경건에 유익하다는 말이다.

사도행전의 방언은 오순절의 확장이 필연적이었던 아주 특별한 환경에서 일어난 것으로 불가항력적이며 일시적 경험으로 나타난 것이었다. 그러나 고린도서에서의 방언은 제어하되 계속적인 은사로 나타났다. 사도행전의 방언 현상이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는 것은 오순절 사건이 다시는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성령 강림은 오순절 사건으로 끝난 것이다. 그런데 고린도서에서는 방언하는 일이 계속적인 은사로 나타나고 있다.

고린도서에 나타난 방언의 개념을 요약해 보면 방언은 성령세례 받은 증표가 아니라는 것이다. 방언은 개인의 경건을 위해 주신 은사로 교회에 덕을 세울 때 유익한 것이지만 제한된 은사로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해 통역하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러즉 형제들이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하기를 금하지 말라”(고전 14:30)고 결론을 내렸다.

예언에 대한 이해

예언은 특정인에게 주어진 은사이다. 종교개혁자들은 믿는 자들 모두는 예언자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만민제사장을 말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예언은 특정인에게 주어진 은사였다. 이 은사는 또한 계시적인 은사였다.

결론적으로 신약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먼저 계시적 성격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비밀을 말한다. 또 신약의 예언은 앞일에 대한 예언과 권면이 포함되어 있다. 사도행전 11:10, 28은 분명히 장래에 될 일을 말하고 있다. 동시에 사도행전 15:32, 고전 14:3에는 권면의 뜻이 포함되어 있음을 보게 된다. 마지막으로 신약성경에 나타난 예언은 설교와는 전혀 다르다. 많은 주석가들이 이 예언을 설교라고 말하지만 설교는 반드시 성경 본문에 기초해야 한다. 그러나 예언은 성령의 영감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설교와 예언은 동시할 수 없다.

이처럼 계시적인 성격을 가진, 그러면서도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비밀이며 미래적 사건과 권면이 포함된 예언은 과연 무엇인가? 구약과 신약의 모든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졌는데 한 가지 이루어지지 않은 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다. 재림은 계시성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비밀이며, 미래적이며, 권면적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언하며 너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피차에 권면해야 할 것이다. (다음주 계속)



Via Dolorosa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
나 또한 가기 원합니다.
영혼을 사랑하사 죽기까지 사랑하신
당신의 사랑을 본 받게 하옵소서!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사 26:3)

3.1절 97주년



하늘을 우러러 뜨겁게 기도하자!

올해는 삼일운동이 일어난지 97주년 되는 해이다. 1919년에 일어난 삼일운동은 어두운 밤 깊이에 잠든 조선 백성을 깨워 일으켜 조선 민족의 자주 독립을 선언하며 일제에 맞서 싸운 비폭력민족운동이다. 지금은 역사 속에 아스라이 사라져가는 유관순 열사, 그녀는 기독교인이었다. 이처럼 삼일운동의 중심점에는 교회가 있었다. 삼일운동 당일 선언된 ‘독립선언서’ 민족대표 33인 중 16명이 기독교계 인사였던 것은 우리 모두 잘 아는 사실이다. 각 처에 있는 교회는 만세운동의 본거지가 되었고, 목사들은 만세운동을 주도했다.

뿐만 아니라 삼일운동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과 한국교회 부흥의 단초가 되었다. 일본은 삼일운동 이후 신사참배를 강요하며 교회에 대한 핍박

에 박차를 가하고 기독교인들을 학살하고 투옥시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확산되고 고난과 역경 속에서 기독교인들의 믿음은 깊어져 조선 땅에는 날로 부흥의 불길이 타올랐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요 복음의 힘이였다.

일본 강점기에 기독교는 조선에 가장 영향력 있는 종교였다. 민족운동과 독립운동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고 그래서 일제의 교회 탄압은 극심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기독교인들의 국가관은 확실했고 그들에게는 조국을 향한 고뇌와 그 고뇌에 따르는 실천이 있었다. 삼일운동은 수난과 희생을 감수한 기독교인의 실존적 역사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서 확실한 국가관이 없다. 역사관도 없다. 고난을 감당하려고도, 희생을 무릅

쓰려고 하지도 않는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로 촉발된 동북아 위기, 한반도 사드 배치 문제로 인한 중국의 예민한 반응, 한미 합동훈련에 대한 북한의 대응 등 대한민국은 바람 앞에 등불 같은데 정작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들은 오늘도 내 가족의安危와 행복이 최우선이다.

97년전 우리의 신앙 선진들이 그랬던 것처럼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뜨겁게 기도하자! 97년전 민족 해방을 위해 일어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이 땅에 울려 퍼졌다면 지금은 분단 70년된 아픔의 땅을 복음으로 통일시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 앞에 있다.

(편집부)

임현수 목사 송환 촉구 서명 운동

어둠의 땅에 빛이 되어

"하나님만 바라보며 감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고난으로 변장된 축복을 끝까지 잘 감당하도록"

‘특대형 국가전복 음모행위’. 북한의 최고재판소가 지난 해 12월 16일 캐나다 토론토 큰빛교회 임현수 담임목사에게 불인 죄명이다. 이에 따라 임 목사는 무기노동교화형(종신노역형)을 선고받고 일주일일에 6일, 하루에 8시간씩 교도소 구덩이를 파는 형벌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 목사는 누구이고, 어떤 이유로 북한으로부터 국가를 전복하려 했다는 죄목을 얻게 된 것일까?

우리 교회 한경석 은퇴권사님의 장남인 임 목사는 1986년 캐나다로 이민해 1990년 토론토 큰빛교회에 부임했다. 그는 1990년대 중반 북한 사람들이 굶어죽는다는 소식을 접하고 노회 대표단과 함께 방북했었는데, 북한의 어려운 실상을 직접 확인한 후 교회 성도들에게 한 끼씩 굶더라도 북한을 돕자고 강조했다고 한다. 이후 그는 북한을 110여 차례 방문해 북한의 고아와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왔다. 임 목사는 북한에 국수 및 라면공장, 백두산 들쭉농장 등을 세웠고, 2013년에는 ‘북한고아를 위한 사랑의 동북 보내기 운동’을 펼치기도 했다. 임 목사는 국내는 물론 북미주 교회를 돌아다니며 모금한 성금으로 북한의 탁아소, 양로원, 병원, 영아학교 등을



작년 7월 북한에 억류 중인 한국계 캐나다인 임현수 목사의 평양 기자회견

도왔는데, 북한은 이러한 임 목사의 인도주의적 활동을 높이 평가해 나진 지역을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통행증을 발급하고, 외국 정상이 머무는 초대소로 안내할 정도였다고 한다.

그러나 지난 해 1월 말 경제협력을 위해 나진에 들어간 임 목사는 북한에 억류돼 교회 및 가족들과 연락이 끊겼고, 같은 해 7월 30일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국가 전복 음모 행위를 저질렀다고 시인하는 기자회견을 했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큰빛교회와 임 목사 가족들은 이 기자회견이 회유와 강압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북한의 대외 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임 목사가 북미주 지역의 집회 등에서 “북한의 정권을 잡고 있는 극소수의 사람, 그건 아주 악입니다... (김정은 정권이) 빨리 망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와 같은 말을 했으며, 이것이 바로 “북한 최고 존엄과 체제 중상 모독과 국가전복 음모행위의 증거”라고 지난 해 12월 홈페이지를 통해 주장한 바 있다.

우리교회는 지난 주까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임 목사님의 석방을 위한 서명운동에 동참했다. 서명운동을 주도한 큰빛교회에 따르면 임목사의 석방을 위해 모두 165,000 명이 서명에 참여했고, 큰빛교회 대표단이 저스틴 트루도 캐나다 총리와 스테판 디옹 외교부장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 이 서명을 전달할 것이라고 한다. 임 목사의 사모인 임금영 씨는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어둠의 땅이지만 임 목사가 빛의 역할을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감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고난으로 변장된 축복을 끝까지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다.

노창훈 집사 (편집부)

열린프로그램 개강

B.B.S.로 오세요!



이주영 집사 (9교구)

안녕하세요. 시연, 시우 엄마 이주영입니다. 아이들이 유치부를 졸업해서 유년부로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제가 유치부에 관해 글을 쓰는 이유는 BBS에 관해 알려드리려합니다.

6,7세 아이들이 예배드리는 유치부의 자랑인 BBS는 Biblio Bible School의 약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본으로 여러가지 단체활동이나 역할놀이를 통해 자신감과 성취감을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일단 유치부실에 들어오자마자 아이들은 지금 자신의 기분을 얼굴종이에 그림으로 나타냅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기분을 표현한다는 자체가 축스럽고 부끄럽고 어떻게 표현할 줄 몰라 어려워하던 아이들이 10주차로 가면 갈수록 다양하고 솔직하게 자신의 기분을 표현합니다.

예배시간에는 그날그날 주제에 맞는 하나님 말씀을 암전히 듣지요. 간식시간이 되면 각자 준비해온 간식을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목사님과 선생님 먼저 드리고 친구들과도 사이좋게 나누어 먹는답니다.

또 만들기나 오감 놀이, 오르프 같은 단체활동을 할 때에는 자신만의 창의적인 생각으로 열심히 참여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지요.

이렇게 경청하며 배려하며 긍정적인 생각을 하며 10주 프로그램을 마친 후 아이들이 보면 눈에 띄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계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양세라목사님과 학부모 상담시간은 내 아이의 장,단점을 파악하여 아이에 관해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지요.

스펀지처럼 알려주는 만큼 짹 짹 빨아들이는 6,7세의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듬뿍 먹이시는건 어떠실까요?

3월 5일부터 5월 7일까지 매주 토요일 10주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BBS에서는 6,7세 유치부 친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두모두 오세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이라



김병호 집사 (서울음악교실 부장)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이라” (이사야 43:21)

서울 교회 성도 여러분! 그 어떤 음악적 재능과 지식이 없어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그 감격을 표현하기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누구나 찬양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하여 서울 음악 교실의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이번 봄학기 강사로는 단국대학교 음대 학장을 역임하고, 새찬송가에 3곡의 찬송가를 수록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작곡가 박정선 교수와 프랑스 파리 에꼴 노르말 졸업, 중앙대, 충남

대 강사 역임, 현재 백석예대 출강, 오페라 도로 단원으로 활동 중인 성악가 최유현 선생입니다.

이번 학기에 박정선 교수는 '연륜 있는 실용적 강의'를 최유현 선생은 '초보를 위한 발성 입문'을 중심으로 강의합니다.

3월 6일부터 10주간 음악 교실의 과정을 이수하시고, 서울 교회 찬양대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회를 갖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서울음악교실을 이수하셨다고 꼭 찬양대를 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찬송가를 더 잘 부르고 싶은 분들도 오셔서 강의를 들으시면 이전보다 더 은혜롭게 찬송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음악교실은 매주일 1시40분부터 3시까지이며 501호에서 모입니다.



동정

■ 이종윤 원로목사는 2월29일(월) 복해폐기를 위한 천만인서명운동 출범식을 갖는다. 3월1일(화) 3.1절 기념식에 참석한다. 3월2일(수) 미래한국55차이사회에서 설교한다. 3월5일(토) 사랑의쌀운동과 몽골국제올림픽바타르대 이사회 개최예배에서 각각설교한다.

■ 주일식당봉사 : 엘리야선교회(2.28) 바울선교회(3.6)

■ 금주의 식사 제공 : 교회제공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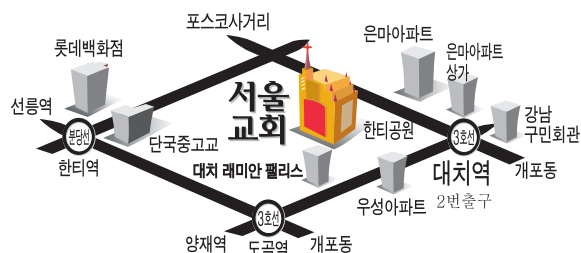
1. 제 97주년 삼일절을 맞이하여 우리 민족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더욱 애국하는 교회가 되도록
2. 사순절 셋째 주간을 통하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신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주님의 고난의 길에 동참하도록
3. 서울성경대학 및 열린프로그램을 통하여 우리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웃 주민들도 큰 유익을 얻도록



■ 예배 및 집회

| 구분 | 시 간 | 장 소 | |
|-----------|-------------------|---------------|-------------------|
| 주 일 예 배 | I 부 예 배 | 오전 9시 | 본 당 II, III, IV 층 |
| | II 부 예 배 (영어동시통역) | 오전 11시 20분 | |
| | III 부 예 배 | 오전 2시 | |
| | 찬양예배 | 오후 5시 | 웨스트민스터 홀 |
| | English Worship | 오전 11시 15분 | |
| 젊은이예배 | 오후 2시 | 본 당 II, III 층 | |
| I 부 예 배 | 오전 11시 | | |
| 수 요 예 배 | II 부 예 배 | 오후 7시 | 본 당 II 층 |
| 새 벽 예 배 | 오전 5시 30분(매일) | 본 당 II 층 | |
| 금 요 기 도 회 | 오후 8시 | | |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